

신년사

“전북 ‘동북아 경제중심지’ 포효하는 한해”



김완주 도지사

“서민지원정책
도정 역량 집중

일자리 생겨서
희망 찾는 한 해”

2010년 올해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만금,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기업유치 등 전북의 낙후를 끊을 3대 과제를 추진하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7000개를 만들겠습니다.

저소득층 임대 보증사업을 비롯한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시책에 힘을 쏟겠습니다.

치매 노인들의 치료와 돌봄, 귀가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개념의 정책을 도입하는 등 고령사회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을 강력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살림살이 지원정책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자리가 생겨서 희망을 찾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은 사라지고 웃음만 찾아오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북호’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라는 향로와 목표를 정하고, 저 높은 창공을 날아오르기 위해 연료를 가득 채웠습니다.

2010년 경인년 새해는 ‘전북호’가 땅을 박차고 날아 오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최규호 도교육감

“100년 내다보는
안목으로 교육

학력신장 위한
확고한 기틀마련”

새 희망으로 설레는 경인년을 맞아 더욱 건강하고 뜻깊은 소망이 이루어지기 기원합니다.

올해도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100년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미래교육 100년의 토대를 세우겠습니다.

먼저 학력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007년을 학력신장의 원년으로 선포한 후 지난 3년 동안 수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공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학력신장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올해도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각종 정책을 펼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가정처럼 편안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는 제2의 가정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자아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학교가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우리 전북교육을 믿고 성원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꿈과 희망이 넘치는 학교, 감동을 주는 교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박상봉 전주지법원장

“화해와 조정통해
사회적 갈등 해소

법정에서 소통
국민에 신뢰받게”

경인년 2010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해 우리 국민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고 있다는 찬사를 들을 정도로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에는 국가적으로 위기 극복에 박차를 가하여 중장기적인 새로운 도약의 큰 걸음을 내딛음과 동시에 전라북도로서도 새만금 개발과 녹색성장산업의 발전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큰 성과를 이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해, 우리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어느 정도 정착시키고, 화해와 조정을 통한 적극적 분쟁 해결을 늘리는 한편 당사자들의 판결에 대한 상소를 줄이는 등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힘을 쏟았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법원은 각종 분쟁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별적 분쟁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 법정에서의 소통에 의하여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최종적으로 해소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더욱 편리한 재판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할 것입니다.

알림

2010전북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새해 아침, 꿈에도 그리던 '등단(登壇)'이란 선물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2010년 전북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작가의 길에 들어선 당선자들을 소개합니다. 당선자 여러분께 뜨거운 축하 인사를 드리며, 당선자들이 한국 문단에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전북일보 독자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당선작은 오늘자 신문 28면~31면과 전북일보 홈페이지(www.jjan.kr)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김혜원



문술아



백상웅



정희경

2010 전북일보 신춘문예 당선자와 당선작

- ▲ 시 - 김혜원(48·전주시 인후 1가) '먼지'
- ▲ 수필 - 문술아(45·경주시 동천동) '누드'
- ▲ 동화 - 백상웅(29·여수시 선원동) '꽃 켜는 아저씨'
- ▲ 소설 - 정희경(41·경기도 광주시) '액땀'

심사위원

- ▲ 시 : 허소라 김용택 ▲ 소설 : 전상국 정영길
- ▲ 동화 : 김자연 김종필 ▲ 수필 : 전일환 김용옥

전주막걸리, 국가 프로젝트로 육성

문광부, 이명박 대통령에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

넉넉한 인심과 푸짐한 안주로 잘 알려진 전주막걸리 문화가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집중 육성될 전망이다.

문화관광체육부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2010년 업무보고'에서 선진형 관광레저산업 육성방안으로 전주막걸리 거리 등 명품 관광콘텐츠를 육성하고,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문광부는 업무보고에서 기존 자원에 다 매력을 더하는 관광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나라 미래 관광레저산업을 육성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전주막걸리 거리와 경주 선덕여왕 등 콘텐츠가 있는 프로그램을 육성하거나 활성화하는 것을, 대표적인 세부사업으로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전주막걸리 거리 등을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 올해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전략적인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문광부의 취지다.

이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향후 전주시의 관광산업에 활력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9대식기자 9press@

3월께 광주고법 전주지부 설치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오는 3월안으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를 계기로 법원조직이 재정비되는 등 전북지역 사법시스템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복수의 고등법원 재판부가 관할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법 전주재판부의 경우 현재의 1개 원의재판부 형식이 아닌 실질

편집=전택수기자 ttsjeon@

익산 식품클러스터사업 ‘탄력’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원안 가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됐다.

31일 전북도와 국회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와 법제사법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다. 개정된 법률에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의 규정,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수립절차 등이 담겨져 있다. 또한 국

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설립근거와 사업내용도 명시됐다.

이에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올 상반기 중 후속법령 개정과 하반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구성 및 정관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2011년 상반기에 설립되기될 예정이다.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향후 거대 식품시장으로 성장할 동북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농식품부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익산시 왕궁면 일대에 2015년까지 8100억원을 투입해 국가식품 전문단지 조성과 기능성평가센터·식품품질안전센터·패키징센터 등 3대 R&D기관이 들어서게 된다.
 김준호기자 kimjh@

